

# ‘예술 도시’ 파리에서 마주한 광주 미술 향연

오는 4일까지 제 39회 무등미술대전 ‘파리로의 초대전’

기경숙·노의웅·류미숙·박영진·박효아·이승희 등 30명 참가  
모네·밀레·고흐 등 세계적인 화가 발자취 따라가는 여행도...

세계적인 예술 도시 파리에서 광주 미술을 알리는 초대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오는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무등미술대전 파리로의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 인근 갤러리 리제네디 디라바스티에서 열린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무등미술대전은 고유한 예술세계와 조형 언어를 정립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세계에 한국미술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펼쳐보일 수 있는 자리다.

198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무등미술대전은 그동안 전국 최고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미술문화 발전과 미술인 역량 강화에도 매진해왔다.

코로나19로 전국 공모전 출품수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역대 최고의 출품수를 기록했으며, 미술대전을 통해 발굴된 신진작가들은 한국 예술을 견인하는 중견작가로 성장하는 등 질적, 양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는 기경숙·김명숙·김미숙·김인숙·김일해·김은자·나금화·노금행·노의웅·류미숙·문연봉·박영진·박찬경·박대후·박효아·배정강·신경옥·양정숙·양화숙·양희영·오석심·윤석수·이명옥·이승희·이영주·장연희·조일주·최은영·황현화 30명이다. 서양화를 비롯해 한국화, 문인화, 공예 등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작품 총 30여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가들



노의웅작 '채녀'

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에도 참여한다.

인상파 화가들의 모임 장소인 옹플뢰르를 비롯해 화가 모네와 작가 모파상이 사랑한 아르트르, 밀레 등 바르비종파 화가들이 활동한 바르비종, 빈센트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한 오베르쉬르우아즈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모네가 빛과 시간, 날씨 변화에 따라 28점 작품을 연작한 루앙 대성당 파사드도 방문한다.

아울러 모네의 마지막 수련 연작을 만날 수 있는 오랑주리미술관, 피카소미술관, 근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 인상파 미술의 보고 오르세미술관, 르부르박물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박물관을 둘러보며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김중재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은 “이번 전시는 국적을 떠나 예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출발점이자 지역 문화와 한국 예술의 해외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미술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나금화작 '내가 꿈꾸는 정원'



박효아작 '갯마을'

## 비우듯 담아낸 수묵의 조형적 언어

정인수 8번째 개인전 ‘관조’...2일까지 북구자미갤러리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가.

모든 삶과 방향성에 대한 사유를 질문하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드러낸 전시가 마련됐다.

정인수 작가의 8번째 개인전 ‘관조’가 오는 2일까지 북구자미갤러리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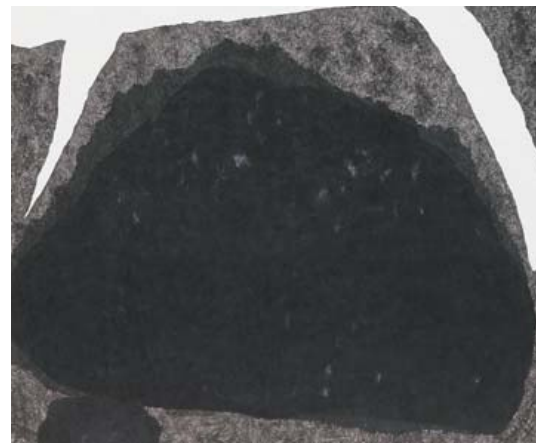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30호부터 80호까지 수묵과 담채로 이뤄진 총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수묵을 통해 짙은 먹과 얇은 먹의 중첩으로 적묵법을 만들며 그 바탕을 선(線)으로 나타낸

다. 곡선은 큰 바위로 재현되고 반복된 발원(發願)의 행위를 통해 염원과 희망을 전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바위 가루, 즉 석재는 그 전체를 포괄해 바위의 형상이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번은 겪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꿈들이 쌓여가고 이뤄질 때 그 희망은 곧 삶의 원천이 된다”며 “수묵 작품들은 우리의 염원, 희망, 신성함, 고결함을 전



정인수작 '人'

달하는 조형적 언어로 귀결(歸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시인 정찬영의 PHOTO 에세이

### L.A에서 열린 5·18기념행사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곳 L.A에서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울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환청처럼 귓전을 울리는 그 소리.

나는 지금도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접수하던 날의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둠을 뚫고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던 그 애절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탕! 총소리 하나에 꽃 봉우리 하나가. 탕! 총소리 둘에 푸르디 푸른 꽃 봉우리 둘이, 떨어져 갔습니다. 도청에서 멀지 않은 동명동 자취방에서 이불을 둘러싸고 그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아침을 생각하면 늘 미안합니다. 지금도 귓전에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탕, 탕, 탕...

광주의 비극을 뒤로하고 1984년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다. 내가 몸소 겪은 일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5·18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변색해서는 안 됩니다. 5월18일 저녁, 이곳 L.A 한국교육원에서 80년 5월 민주투쟁위원회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김중배 전 의원이 연사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5월이 지나갑니다. 이역만리 외국에서 5·18광주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사실 L.A는 5·18정신 세계화를 위해 더 없이 좋은 도시입니다. 관계기관의 관심과 성원이 있다면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전합니다. /최명진 기자

### 광주미술상 창작지원 청년작가 9일까지 공모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가 2023 창작지원 대상작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만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미술인들이다. 광주·전남 출생이거나 광주·전남 소재대학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타지 출신일 경우 광주·전남 지

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활동한 작가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https://blog.naver.com/gj-art) 또는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gj-art@naver.com, 010-2646-7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ONestore